

한국 현대미술사 거장에서 주목받는 동시대 작가까지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21개국 69팀 참여 작가 확정

2026 제주비엔날레에는 한국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의 작품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까지 폭넓게 펼쳐진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이어지는 제주비엔날레에는 국내외 21개국 69팀(명)이 참가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유배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제주만의 조형과 미학의 계보를 집중 조명하는 공간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유배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제주만의 조형과 미학의 계보를 집중 조명하는 공간이다.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북방 거석 문화가 오늘의 미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탐구한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 겸 예술감독은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맞이한 이번 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주말, 여기 해양 환경 다룬 마로의 '리부이 떠오르는 빛'

함께 살아야 할 제주 바다 읽고 보고

공연장과 공공 도서관 연결 설명 대신 느끼는 공연으로 다음 달 4-5일 서귀포예당 이달 21·27일엔 연계 워크숍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제주 해녀의 바다. 페그물과 플라스틱은 고래와 바다거북을 움아매고, 바다위를 뒤덮은 쓰레기는 햇빛을 차단해 바닷속 생태계를 위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6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의 제주 전통 분야 선정 단계인 사단법인 마로의 '리부이(Re:Buoy) 떠오르는 빛'은 그 바다로 눈길을 돌린 작품이다.

존 레논·방탄소년단 초상 자연 풍경과 어울린 얼굴

김진수 서울에서 초대전 9월엔 동일 작품 제주전

그는 평소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한다고 했다. 그중 '이매진(IMAGINE)'은 어릴 적부터 즐기던 노래로 개인전이 열릴 때면 반복해 틀어 놓곤 한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갤러리 쉐라 초대로 이달 18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인전을 펼치는 김진수 작가.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



해양 환경과 기후 위기를 다룬 창작극 '리부이 떠오르는 빛'. 마로 제공

귀포로 향한다. 7월 4-5일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이 작품은 '창작 아동 생태 그림자극'을 표방했다. 해변에서 수거한 폐부표로 만든 조영 오브제가 무대를 채우고 그림자극, 국악 라이브 연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다.

특히 해양 환경을 다룬 무대를 넘어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인근 삼매봉도서관을 연결해 책과 공연의 만남을 꾀했다.



김진수의 '2026 당신은 그 곳에 있었습니다-BTS'. 작가 제공

는 이번엔 '2026 당신은 그 곳에 있었습니다-이매진'이란 제목 아래 자연을 모티프로 회화적 상상력을 더한 한국화 기법의 초현실주의적 화풍을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은 '당신은 그 곳에 있었

연 연계 워크숍이 열려 환경교육사의 해양 환경 교육, 페플라스틱 오브제 창작 활동, 그림자극 놀이 등으로 구성된 '리부이 바다지킴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양호성 마로 대표는 "책을 통해 해양 환경 문제를 접한 사람이 공연에서 그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나고, 공연을 본 관객은 도서관에서 그 관심을 더 깊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연장과 인접한 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점이 되어 서로 연계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연. 예매는 서귀포E티켓.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습니다' 연작 20여 점.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로 다가오는 그림 속에 생명의 이미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작가는 제41회, 제43회 제주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원하는 국제교류작가로 호주 타즈메니아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관악·타악콩쿠르 20개국 315명 경연

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8월 7-15일 문예회관 등 내일은 서울서 사전 홍보

제31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8월 7-15일)과 연계한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에 20개국 315명이 참가한다.

18일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콩쿠르는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콩쿠르 1·2차 예선은 8월 7-11일 함덕고등학교 백과뮤직홀, 제주 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 아라뮤즈홀에서 부문별로 치른다.

공연 소식

안다미로아트컴퍼니 '짐-계급사회'=회사라는 조직을 배경으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과 부조리, 도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담아낸 무용극이다.

극단 오이 '4통 3반 복층 사건'=7월 부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국제 제주 참가작으로 제주·4·3 소재 작품이다.

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 연주회=임대홍의 지휘로 50여 명의 단원들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을 연주한다.



서울 사전 홍보 행사에서 공연하는 앙상블88. 국제관악제조직위 제공

8월 12-13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시상식과 입상자 음악회는 8월 1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

한편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는 이달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2026 아르고 썸 페스타 프리뷰 위크'에 참가해 국제관악제 사전 홍보에 나선다.

제주교향악단 수석 단원, 일본 연주자인 이시하라 유키코가 협연하는 루드비히의 '마림바 이중 협주곡 유니버스'도 준비했다.

록밴드 페스티벌=서귀포예술의전당이 올 상반기 운영한 문화예술교육의 결실을 알린다.

극단 사색 '질레질레 동화'=우리에게 친숙한 전래 동화 몇 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Advertisement for the Jeju Jeonjoo Family Association (晉州姜氏濟州道宗會) featuring a list of elected and appointed members with their names and titles.